

NECF
MALAYSIA



어른용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레이시아를 위한 40일 금식과 기도 2015.8.7 - 9.15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절-11절 개역개정)



- ¹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 ²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 ³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 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⁵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⁶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 ⁷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 ⁸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 ⁹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 ¹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 ¹¹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거하라

머리글. 말레이시아 복음주의협의회(NECF) 회장. Eu Hong Seng 목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하다’라는 말은 ‘살다’, ‘머무르다’ 또는 ‘남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 혹은 그 안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야 하며, 모든 일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참된 열매를 맺는 일보다는 각자 교회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사역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양육하고 파송한 제자의 수보다 모이는 숫자와 건물의 규모로 사역의 성공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보다 ‘교회의 삶’에 너무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국가에 대해 입장을 펼쳤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지만 순종의 제사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일에 열정과

수고를 해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간과했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들의 섬김보다 잘 구성된 조직과 전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사역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역이 재능과 능력에 치중되고 있으며, 교회의 프로그램은 관리와 운영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 거함으로써 경험하는 성령의 감동에는 아주 둔감해져 있습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또한 전적인 의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포도나무에 의존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의지하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가지는 결국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저 겨우 아는 정도의 피상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 관계의 풍성함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삶이 너무 분주하여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날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전보다 더 역동적이고, 열정적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맞서 싸울 때, 우리의 삶에 도움과 힘을 주시는 성령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숨에 끝나는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의지, 믿음에 대한 전 생애에 걸친 헌신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장거리 경주를 도중에 포기해버려서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날 교회와 민족에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더욱 우리의 마음에 절실히 와 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며, 그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읍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서문

기도운동 위원회 (발행인)

기도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는 열쇠이므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기도는 우리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아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도의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고, 그러한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7-8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열매 맺는 기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헌신이 빛을 발하면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자가 된 우리는 참 스승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본받아 열매 맺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40일간 말레이시아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날마다 그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여러분은 기도책자를 읽고 매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이다. 매일의 주제는 현지 교회 목회자들이 그들의 실제 훈련의 삶을 토대로 직접 작성한 것이다.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더 깊고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강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는다.



NECF 40일 금식과 기도

말레이시아 복음주의 협의회(NECF)가 주관하는 40일 금식과 기도운동은 2001년 시작된 이래 계속되고 있다. 이 기도책자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교회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도전하고 동원한지 15주년이 되는 만큼, 올해의 기도책자는 그 의미가 크다. 이제는 이 기도운동이 각 공동체로부터 모인 말레이시아 복음주의 협의회(NECF)의 교회와 성도들이 매년 기억하고 지키는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자발적 기도운동은 90년대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던 큰 부흥과 연관이 깊다. 그 부흥의 물결이 말레이시아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2000년에 열린 수련회(Breakthrough Conference and Rally)에 아르헨티나 부흥의 주요 인물인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다. 그런데 그곳에 말레이시아를 위해 속히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임하였다. 그것을 계기로 비로소 전국민적인 40일 금식과 기도 운동을 기획하였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 복음주의 협의회(National Evangelical Christian Fellowship)

NECF는 1982년 창립이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목적과 역할은 여전히 동일하다. 교회를 향한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에도 마음과 뜻을 모아 대응하는 등 여전히 복음주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여러 면에서 현지 교회의 개척과 성장을 돕고 있다. 최근 몇 년간, NECF는 나라를 세우는 것과 사회적 영역에서의 역할을 주요사안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복음주의 교회들을 주축으로 책임감을 갖고 교회가 국가의 현안에 깨어 있도록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지혜롭고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NECF를 위한 기도제목

- NECF의 비전을 위해- 말레이시아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도록
- 현지 교회 간의 교제의 끈이 단단히 결속되고 연합되어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자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에게 지혜를 부여주셔서 말레이시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지혜롭고도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리더십이 되도록
- 사무국을 위해 -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레이시아 교회를 동원하고 섬기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금식으로 부르심

본 격적인 금식과 기도를 실천하기에 앞서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분산된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께서 하나되게 하신 교회인, 우리의 간구로 말레이시아를 위한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 날을 예비하자.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의 표현이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가족, 교회, 공동체, 민족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지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

금식을 시작하며

- 금식의 목적을 정하라.
- 40일 동안 금식을 행하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금식의 유형을 정하고 따르라.
-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는지 마음을 돌아보아 영적으로 준비하라.
- 육체적으로도 준비되었는지 점검하라.
- 금식 후 첫 식사는 적은 양으로 적절히 하라.

이 밖에 자기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도 좋다. 또한 다른 이도 금식과 기도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라.

실천을 위한 제안

가족과 함께 : 가정이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고 가족 모두 기도에 동참하라. 각각 금식의 유형을 정하여 금식하고 매일 기도책자를 이용하여 기도하라.

소그룹과 함께: 금식의 유형을 정하고, 기도 시간표를 만들어 셀 멤버 별로 날마다 시간을 배분하여 기도할 수도 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직장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라.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그 날에 해당하는 주제에 따라 기도하라.

화상, 음성, 채팅 등을 이용: 친구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기도하고, 나눌 수 있다.

후원

금식으로 절약된 금액을 따로 구분하라. 금식하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사 58:6-9). 제공된 봉투를 사용하고 수표로 수신자 'NECF Malaysia'로 보내면 된다. 현금은 동해안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NECF 자선기금'으로 보내진다. 우편을 이용한 현금 송금은 받지 않는다.

금식의 유형

일반 금식: 물과 음료만 섭취하고 음식은 먹지 않음

한 끼 금식: 하루 한 끼를 먹지 않음

다니엘 금식: 육류 금식으로 과일과 채소만 먹음

다니엘 금식2: 평소에 즐기던 커피, 차, 초콜릿 등의 음식뿐만 아니라 취미, 부주의한 말 등의 절제

미디어 금식: TV, 컴퓨터 게임, 영화, 인터넷 등 모든 유형의 미디어 절제

40일 릴레이 기도

릴레이 기도의 기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사야 62장 6-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러한 기도의 예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또한 교회사에 걸쳐서도 등장한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행 1:14).”라고 묘사하고 있다. 한편 교회 초기에 기독교의 신앙은 사막교부(Desert Fathers)들의 수도원과 북유럽의 켈트인 공동체, 그리고 베네딕트 수도회 등을 통해 배양되었다.

18세기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끈 모라비안 공동체는 100년 이상이나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선교에 관심이 없는 당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라비안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이것은 진실한 기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또 감리교의 창설자 존 웨슬리가 회심하도록 이끈 것도 모라비안들이었다.

20세기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Azusa Street)에서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인 릴레이 기도집회가 열렸는데, 이는 전세계가 주목했고 현재까지 많은 교회에 영향을 준 아주사 대부흥운동으로 변했다.

릴레이 기도는 이로부터 널리 알려져 전세계적으로 이뤄졌고 요즘은 세계 기도 운동의 경향이 되었다.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역사적인 대부흥을 고대한다면 전세계는 마땅히 끊임없는 진실한 기도에 헌신해야 할 것이며, 이는 갇힌 자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부르심이다.

말레이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 손을 뻗어 멈추지 않는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말레이시아 교회와 나라를 위협하는 엄청난 재난과 많은 어려움에 대해 빛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40일 기도와 금식 프로그램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상 언급한 내용을 염두하면서 모든 교회는 속히 릴레이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 24시간 기도를 위한 릴레이 기도표를 구성해도 되고,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 일주일 간의 릴레이 기도를 계획해도 좋다. 이 기도와 금식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한 순간도 멈추지 않게 하라.



참 포도나무에 거하라 :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다(사 5:7).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관계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영적인 간음을 범했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포도나무의 비유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되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며(요 15:1) 그 동안의 포도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온전한 충성과 순종에 대한 본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눅 3:22).”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으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어떠한 거리낌이나 의문없이 아버지의 뜻을 한결같이 따르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순종의 완벽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거함으로써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슬랑오르(Selangor) 주(州)를 위해

• 슬랑오르 주 정부를 위해:

1) 주지사와 집권자들이 투명성, 성실성, 공정성을 추구하도록 2) 모든 정책의 실행이 유용하며 효력이 있도록 3) 재정을 지혜롭게 운용하고, 많은 자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4)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5) 빈곤퇴치에 헌신하도록 6) 가난한 이들의 삶의 터전과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개발 계획이 세워지도록 7) 부패한 공무원을 척결하도록

• 말레이시아 원주민(Orang Asli)에게 공정한 처우 및 존엄성이 주어지도록

• 교회를 위해:

1) 연합 - 말레이시아의 교회가 자아중심적이기보다 예수중심적인 교회로, 교회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교회가 되도록 2) 교회에 닥친 어려움과 과제들을 잘 인지하고 지혜로운 말로 권면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탁월함을 드러내며, 농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이 넘치도록



참 포도나무에 거하라 : 참 포도나무에 거한다는 것

요 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포도나무와 그 가지라는 원예학적인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연합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신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며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요 15:4-7). 유명한 신학자인 시들로우 백스터(Sidlow Baxter)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전과 충전을 되풀이하는 배터리 시스템 같은 것이 아니라,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어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마치 포도나무에 유기적으로 결속된 영적인 가지와 같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의 안에 거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그 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느그리 쉘빌란(Negri Sembilan) 주(州)를 위해

- 주 정부를 위해: 지혜와 투명성을 갖추고, 부정부패가 척결되며, 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재정을 잘 관리하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특히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 교회를 위해서:
 - 1) 연합, 비전, 예수님을 향한 열망,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하도록
 - 2) 헌신된 리더와 전임 사역자들이 더 세워지고 그들에게 적절한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 3) 캠퍼스 사역, 특히 외국인 유학생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 4) 졸업한 기독교 청년들이 고향과 모교회를 세우기 위해 돌아와 헌신하도록



참 포도나무에 거하라 :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셨고, 덧붙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포도원의 농부라고 비유하셨다. 포도원 농부의 역할은 포도나무의 건강과 성장과 결실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는 것이다. 포도나무가 더 많은 수확을 내게 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 또한 농부의 일인 것이다(요 15:2).

우리 삶에서 가지를 제거한다는 것은 다소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 지도록 반드시 행하시는 작업이다. 수술대에서 우리 몸의 상하고 썩은 부분을 제거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영적 성장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 성품의 죽은 가지만을 잘라내실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12장 9-10절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지치기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찾을 수 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당신은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말라카(Melaka) 주(州)를 위해

- 주 정부와 지방의회를 위해: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정직한 행실로 임기 동안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하고 그들의 마음과 귀가 성령의 권면에 열려있도록

- 주지사와 주집행위원회가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 교회를 위해:

1)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연합의 영으로 복 주시도록 2) 하나님들의 사람들이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더 담대해지고, 복음 전파와 복음의 능력을 보임에 있어서 보다 민감하고 세심하게 접근하도록 3) 기독교 학교들이 성경적인 원칙으로 교육하며 양질의 교사가 충원되고 기독교학생회 활동의 자유가 주어지도록



가지 :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건강하게 자라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흡수해야만 한다. 만약 토양이 비옥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성장에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얻지 못한다면 가지는 제대로 자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부족함 없고 마르지 않는 온전한 포도나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든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므로 그를 대적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공급받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영적 은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범무장관을 위해

- 진실과 의를 추구하도록
-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 범무장관과 그의 직원들이 부정 조작과 외부의 압력,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도록



가치 : 거룩한 삶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3장 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일꾼을 찾으실 때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사람은 쓰지 않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뜻을 성취하기 위해 누군가를 택하여 그의 삶에 일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거룩함과 의와, 정직을 사모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가고자 하는 길을 막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장벽이다. 그렇기에 정결케 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시 66:18).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깊은 회개를 통해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의 모든 거짓된 것을 제거하고, 우리 손으로 행한 모든 불의한 행동을 씻어내도록 하신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한 삶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바로 이 때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의 가지로 흐르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위해 애쓰며,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오직 그의 의를 구하고, 삶의 전부를 구별하여 주께 드려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판사들을 위해

- 사법부가 연방 헌법을 인정하고 적용하도록
- 편파적이지 않은 판결로 정의를 실천하도록, 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돈으로 조종당하지 않고 오직 제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결하도록
- 독립적이고 결단력 있는 판결을 위해-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에 대중의 지지와 비난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오로지 객관적 사실, 법률과 헌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도록, 법조항과 원칙에 근거한 판결을 위해



가치 : 승리의 삶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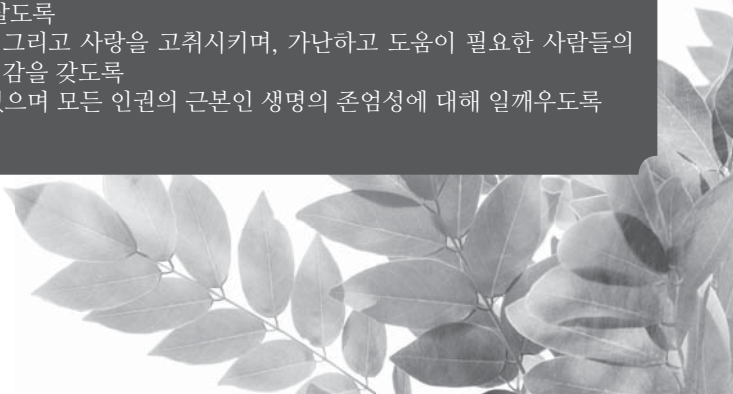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진정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패배할 운명이 아닌, 승리 가운데 사는 삶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

이 세상에서 활개 치는 억압과 시험, 그리고 악한 권세들은 사라져야 한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으며, 교회에 위기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불리한 상황들과 악한 세력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막 16:17; 눅 9:1-2).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1) 우리 주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과 능력을 받는다. 2)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대하면서 주님을 신뢰한다. 3) 믿음과 담대함으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다. 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 변호사들을 위해

- 변호사들이 온전히 신뢰할 만하고, 끊임없이 조사하고, 정확히 판단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며, 변론에 능하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고, 항상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도록
- 법을 준수하고 모든 말이 진실되도록,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원칙을 세워 투명한 삶을 살도록
- 그들의 변호가 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을 고취시키며,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도록
- 변론이 담대하고 설득력 있으며 모든 인권의 근본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일깨우도록





가 지 :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5장 16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 받아 하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우리는 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순전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자의 눈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자비의 대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메시지를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한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대사로써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진리와 정직과 선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 따라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대와 불의에도 우리는 용서를 베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는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인가?**

나라를 위한 기도: 내부부를 위해

-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청렴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자들이 되도록
- 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정책을 세우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다양한 종교, 인종, 계층을 포용하도록, 다른 소수 민족을 소외시키는 정책이 개선되도록





가치 :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14절

말 -레이시아의 교회는 현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나라의 어떤 종교권이 나서서 사람들을 개종시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과 오지에서 이러한 일들은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 종교권이 받는 많은 자원과 자원으로 인해 이런 일에 확실히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교회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는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강해져야 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자.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적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경찰을 위해

- 경찰들이 청렴하고 정직한 마음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갖도록, 경찰 내부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 경찰이 밤낮으로 시민들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이 나라의 극단적 이슬람 과격단체를 적발하게 하심에 감사, 경찰들을 두루 살피시고 그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 경찰과 정부단체(사법부, 검찰)가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더 큰 시너지를 얻도록



가지 : 사회에 영향을 미치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15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 3-4절

민은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통해 진리의 말씀과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세 사람에게 새 생명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진리와 구원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은혜로 남길 원하지 않으신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주를 따르는 제자를 세우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회심한 상태로만 머무르지 않고 마땅히 제자로 성장해야 한다. 성도를 사회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타협하지 않는 헌신과 담대함,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라야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의 크나 큰 영향력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자.**

나라를 위한 기도: 이민국을 위해

- 정의로운 일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공공을 위해 봉사하도록
- 공무 수행에 있어서 신뢰할 만하며 신속하도록
- 금전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면에서 정직하도록



가지 :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8-10절

우리는 다음 세대가 현재 리더십을 잘 이어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 일에 말레이시아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가 직면하는 더 큰 위협과 문제들로 말레이시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그들의 바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말하자면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이후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확실하고 자격있는 리더가 없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당시의 부모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안내할 수조차 없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가 죽었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을 이끌만한 지도자가 없었기에 사람들은 점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삿 21:25). 결국 이스라엘은 혼란만 가득한 무법천지가 되었다. **당신은 다음 세대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적이 있는가? 세대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군인을 위해

-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 지혜로운 경영과, 세심한 주의와 배려,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 권위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열매 : 첫 번째 명령

창세기 1장 28절을 읽으라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가장 처음 명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는 것이었다. 왜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생육과 번성을 통해 인류는 땅에 충만하였고, 땅을 정복했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확장하고 실현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인간의 원죄, 이스라엘의 성립,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교회의 탄생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열매를 맺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척도를 뜻한다는 것을 안다. 결국 ‘열매’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삶에도 유익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름 받은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나라를 위한 기도: 꾀란탄(Kelantan) 주(州)를 위해

- 꾀란탄 정부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계시가 더 깊어지도록, 그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도록
-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이재민들이 음식과 약, 교육 등의 기본적인 필요를 적절히 공급받고,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재정적 위기, 정신적 충격 등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 교회가 날마다 사명을 기억하여 각자가 속한 사회에서 담대히 서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크리스천 리더들이 병들고 상한 자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제대를 제자삼기 위해 일어나도록.



열매 : 각기 그 종류대로

창세기 1장 11-13절을 읽으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육과 번식에 대한 자연법칙을 적용하셨다. 이에 모든 식물과 채소는 각기 그 종류대로 자라나고 씨를 퍼뜨리게 되었다. 창세기 1장 12절에서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묘사하고 있다.

현대 과학은 모든 식물의 씨는 종에 따라 번식을 위해 필수적인 생물학적 코드(DNA)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각각의 다양한 세포가 완전한 상태로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 유전학에 대한 신비로운 사실들을 밝혀냈다.

이러한 원리는 제작자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바울은 교회에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다. 바울은 단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하지 않고, 그가 살았던 삶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한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모델을 보여주었다. 바울은 자신을 닮은 제자를 배출해내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 DNA’는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이전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해져왔다. ‘복음 DNA’의 전달자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위임 하신대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성실하게 전파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파항(Pahang) 주(州)를 위해

- 말레이시아 최대의 고지대인 카메론 하이랜드(Cameron Highlands)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이 고용인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수고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노동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 리조트와 카지노가 번창한 겐팅 하이랜드(Genting Highlands)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두신 부르심과 목적을 깨닫도록, 그들이 자신의 은사와 자원을 상한 곳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사용하고, 또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전문가들을 세우는 데 힘쓰도록.
- 천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 파항 주의 2/3를 차지하는 열대 우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보존된 지역 중의 하나이다. 집권자들이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공정한 방법으로 자연을 관리하도록.



열매 : 아홉가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6-25절을 읽으라

건 강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나무의 열매로 가려낸다고 말씀하셨다(마 7:18).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는 성도의 삶의 증거이며 그 속에서 반드시 맺어져야 하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노력은 종종 실패나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이 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한 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분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또 그를 통해서만 찾아야 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면 우리 영혼은 만족과 회복을 누리며, 우리의 성품과, 태도, 관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위해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가진 것들을 의지했던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시키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자. **당신은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가? 그리고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맺은 결과인가?**

나라를 위한 기도 : 프렝가누(Trengganu) 주(州)를 위해

- 프렝가누 술탄(왕)과 주지사를 위해 - 그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지역사회와 주민을 우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에 관심 갖고 지혜와 공감하는 마음과,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도록
- 프렝가누에 있는 0.2%의 그리스도인(2010년, 인구.주택조사)들이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날마다 자라가도록



열매 : 우리의 말

마태복음 12장 33-37절을 읽으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열매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열매를 맺고 안 맺는 문제에는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거나 나쁜 열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어쨌든 일종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맺는 열매가 어떤 종류의 열매인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우리의 말에 있다.

요즘은 말의 중요성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시대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열매)로 우리(나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안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34절).”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꾸짖으셨다. 이를 통해 우리의 내면과 외적인 말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이 조화를 이룰 때 적절하고 올바른 행동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는 말의 권세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복음을 전하는 말)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고전 1:21)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부주의한 말로 다른 이를 상처 입히고 공격하고, 또 교회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세우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정죄하는 말을 하는지 되돌아보자.**

나라를 위한 기도 : 사라왁(Sarawak) 주(州)를 위해

- 동말레이시아의 사라왁 주는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30%)보다 기독교인(44%)들이 많은 유일한 지역이다(2010년, 인구.주택조사). 사라왁의 교회가 그 땅의 파수꾼으로서 서로 연합하고 기도에 헌신하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그 땅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전권적이고 권위 있는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 아드난 사템(Tan Sri Datuk Patinggi Adenan Satem) 주지사가 사라왁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위해 정당하고 공정한 정치를 펼치고, 말은 직무를 지혜와 정직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지혜롭고 신뢰할 만한 조언을 수용하도록
- 그 땅의 소수민족과 원주민이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게 되도록



열매 : 의와 평강의 열매

히브리서 12장 7-11절을 읽으라

본 문은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불리는 열매에 대해 이야기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예로 들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사람들을 징계하시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10절)에 참여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바로 고통 뒤엔 평안이 따르고, 연단 뒤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다.

혹시 당신 삶의 꿈을 수 없는 죄로 인해 고난과 징계를 겪고 있는가? 완고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위험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편에 서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하신다. 왜냐하면 죄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녀를 지키기 위해 그의 권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의의 길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를 잘 요약하고 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 32:17).”

공의의 열매는 평안이다. 평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다. 혼란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의가 넘치는 거룩한 삶 속에서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종교의 자유를 위해

- 정부가 인종, 종교,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하도록. 특정 정당이 한 인종에 대해 종교적, 민족적 우위를 주장하려는 모든 노력이 무효화되도록
- 정부가 다른 어떤 법보다도 우선시 되는 연방헌법의 권위를 보장하도록, 중도 온건파의 주장이 표명되도록, 정부가 극단적인 종교 원리주의자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 다수 종족의 구원을 위해 - 거지는 사람이 세워가는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도록



열매 : 쓴 뿌리

히브리서 12장 12-17절을 읽으라

히브리서 저자는 의와 화평의 열매에 대해 언급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12-14절)고 권면한다. 또한 교회를 향해서는 이로써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13절)고 명한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저는 다리’이자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잠 4:27).” 또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지만 동시에 1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저자는 ‘쓴 뿌리’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고 경고한다. 깨어진 관계, 반항적인 자녀, 교회의 분열 등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쓴 뿌리에서 기인한다. 왜냐하면 쓴 뿌리는 공격적이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전히 존재하는 쓴 뿌리로 인해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하라.

나라를 위한 기도 : 가정 사역을 위해

- 가정의 중심에 성경적인 토대가 굳게 다져져서 다음 세대를 키울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가정을 곤경에 빠뜨리는 사탄의 계략과 공격이 무너지도록
- 부모들이 그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헌신적인 마음을 갖도록
- 이 세대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마음 다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말씀의 기초와 성경적인 세계관이 세워져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분별력을 갖추도록



열매 : 무화과 나무의 비유

누가복음 13장 6-8절을 읽으라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 하나는 신실함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 맺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없이, 우리의 섬김이 신실했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무관한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점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없이 섬김에 아주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주 열심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 전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깨우쳐 주시려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3년 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1년 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자 확장된 회개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열매가 끝내 맺히지 않는다면 나무는 결국 찍혀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또한 이러한 긴박성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우리에게 대하여 인자를 베풀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거나 당연한 것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실 무화과나무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진 못했지만 아주 잘 ‘살아있는’ 상태였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겉보기에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빈약하고 열매 없는 상태이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신실하고 독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라를 위한 기도: 사회를 위해

-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사이의 화합을 위해 - 자만심, 적대감, 권위주의라는 벽이 사랑과 겸손, 격려의 가교로 바뀌도록
- 말레이시아를 집어 삼키려 위협하는 탐욕과 부패, 정욕, 악물 남용, 강간, 살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주께서 이 땅에 범람하는 악을 멈추어 주시도록. 어둠을 몰아낼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을 비추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범죄, 무장세력, 인신매매에 대해 관련 당국이 보다 철저한 안보와 경계로 대처하도록
- 말레이시아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기관들과 여러 NGO를 위해 - 수로를 청소하고, 고아를 돌보고, 음식을 제공하고, 병들고 노쇠한 자를 보살피고, 동물을 보호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힘쓰는 이들에게 지혜와 후원과 물질, 인적자원이 끊이지 않도록



가지치기 : 가지치는 주인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읽으라

가지치기는 원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업으로, 식물의 건강과 과실을 위해 의식적, 선택적, 의도적으로 수목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가지를 치는 사람은 식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나무를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포도원의 농부라고 명확히 밝히시는데, 그 농부는 포도나무를 관리하며 가지치는 작업을 담당하는 분이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속속들이 아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포도원의 농부처럼 우리의 강함과 연약함을 아주 잘 알고 계신다(시 139).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면, 그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는 그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안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가지를 치시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히 12:4-6). 우리는 이를 기억하면서 농부의 가지치는 작업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릴지 할 것이다.

당신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가지치기 작업에 우리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방송·통신부를 위해

- 방송·통신부의 아마드 샤베리(Datuk Seri Ahmad Shabery Cheek) 장관의 모든 결정이 지혜로운 조언들을 수용하여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진하고 진실하며 공정하고 인정이 있도록
- 이 나라에 건전한 정신, 경건한 관점, 말레이시아의 필요를 분별하는 명철이 부어지도록, 사단의 거짓말은 밝히 드러나 수치를 당하도록
- 장관이 상사, 동료, 파트너, 언론 그리고 각료 직원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부정부패에 항의할 수 있는 정직한 힘을 갖도록
-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도 빠르게 음란물 및 위해물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방송·통신부를 통해 이러한 매체가 차단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의롭고, 온전하고, 신실하도록



가지치기 : 의도된 결말

가지치기는 나무가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게 한다. 가지치기에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농부가 과실을 맺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다.

가지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나무 줄기에서 공급이 중단돼 가지가 약해졌을 수 있다.

또는 가지가 병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영양이 결핍된 가지는 병충해에 저항할 힘이 없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죽게 된다. 만약 병든 가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가지로부터 병이 퍼져서 다른 가지나 나무 전체, 심지어 포도밭까지도 망칠 수 있다.

나무를 잘 가꾸고 지키는 성실한 농부처럼, 하나님은 죄라는 질병이 우리 삶을 꿀게 하거나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영적 질병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언론을 위해

- 모든 신문사의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잡도록. 그들이 가진 시간과, 재능, 자원 등을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의로운 신념과 진실한 바람을 갖도록
- 주요 일간지의 편집자와 기자들이 외부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벗어나 진실을 보도하도록. 그들이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버리지 않도록 용기가 부여되고, 국가에 대한 건전한 생각과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민감하고 지혜와 진실과 정직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이 나라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견을 내고, 성령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가지치기 : 작업의 방법과 절차

예 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가지치기를 설명하실 때, ‘제거하다’와 ‘깨끗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제거하는 작업은 한번 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해서는 안되며 때와 상황의 필요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 절단 작업은 이미 죽거나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한 가지가 대상이 된다. 잘려서 밖에 버려진 가지들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질 것이다(요 15:6).

가지치기는 절단의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다른아닌 나무를 보다 건강하게 가꾸어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이다.

가지치기는 앞으로 열매 맺을 나무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이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행된다. 농부는 가지치기가 잘 되어서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는 마치 초원의 양들을 항상 돌보시는 선한 목자와도 같다(요10). **당신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위해

- 온 땅의 만물은 주님의 충만을 드러낸다!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매체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 창의성을 발휘하라.
- 부도덕한 가치를 미워하는 정직한 신념의 물결이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로 흘러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날날이 드러나도록
-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발휘하고 창의성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들의 부르심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 하나님께서 이 분야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기쁨 부으셔서 그들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작품을 통해 성경적인 가치와 행실, 삶의 방식 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지치기 : 잘라내기를 통한 치유

가지치기에서 가지를 자르는 목적은 나무로부터 가지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최종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다.

가지가 병충해를 입으면 농부는 먼저 다른 가지로 병균이 번지지 않도록 상한 부분을 잘라낸다. 이때 너무 많이 잘라내서 오히려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작업을 할 것이다. 또한 농부는 나무가 병이 나고 다시 튼튼해 지도록 끝까지 보살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적 건강을 해치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신다. 뿐만 아니라 회복과 치유하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절단작업은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이다. **당신은 회복을 위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겠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펠리스(Perlis) 주(州)를 위해

- 하나님의 영광이 펠리스 주민에게 비취도록,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도록 선포하라.
- 소수의 기독교인이 강아르(Kangar)시에 거주하는데, 그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도록
- 주 정부가 일부 다처제 규정을 완화한 가운데, 일부 여성 단체는 이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 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 태국 접경지역인 파당 벵사르(Padang Besar)와 왕 끌리안(Wang Kelian)은 불법 이민자들의 밀입국이 성행하는 곳이다. 그 지역의 군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힘입어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제재하도록



가지치기 :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는 약하거나 병든 가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가 증명하듯 건강한 가지이다. 그런데도 왜 가지치기가 필요한가?

원예학적으로, 가지가 튼튼하고 건강할지라도 그 가지의 성장과 결실을 저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만 한다.

영적인 측면도 그와 같다.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동시에 주님과와의 동행을 방해하는 외적인 방해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무기력, 태만, 무관심 혹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지금도 분투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가지치기 작업이 우리 삶에 시작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우리에게 해가 아닌 유익을 위함이며, 우리가 놓기 아까워하는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혹시 우리 삶에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나라를 위한 기도: 꼬다(Kedah) 주(州)를 위해

-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귀한 꼬다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케다의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 더 많은 성경교사가 세워져서 청소년 사역의 열매들이 말씀을 통해 성장해가도록
- 발링(Baling), 꾸방 빠수(Kubang Pasu)와 같은 시골의 심각한 빈곤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실행되어 주민의 삶이 개선되도록
- 꼬다주에서 가장 높은 산인 구능 저라이(Gunung Jerai)는 신들의 거처로 여겨져 초자연적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명상가들이 자주 찾는다. 그들이 미지의 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가지치기 : 농부의 기대

농부는 그의 나무들이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밤낮으로 수고를 한다. 그가 쏟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건강하지 않고 열매를 적게 맺거나 또는 아예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

나무가 양질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그것은 농부에게 큰 기쁨과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가 나무를 건강하게 잘 가꾸는 유능한 농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는 농부와 그가 가꾸는 나무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농부는 필요에 따라 나무에게 비료를 주고, 꼼꼼히 살피고, 보호하고, 가지치기를 하며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이 모든 것은 나무가 건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미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모두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신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비전을 품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페낭(Penang) 주(州)를 위한 기도

- 페낭의 여러 종교 시설에는 그 신성함을 쫓아 많은 이들이 방문한다. 말레이시아 최대의 관음보살상이 있기도 하고, 부킷 머르타잠(Bukit Mertajam)에 위치한 성 안나(St. Anne) 가톨릭 교회의 축제에 매년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한다. ‘아시아의 진주’라 불리는 페낭이 진리를 찾는 영적 여정 중에 진정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 페낭의 주도인 조지타운(Georgetown)은 19세기부터 무역 중심지로 자리잡아 물질주의가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기만족과 물질주의에 맞서 기도하자.
- 영국 식민통치 당시 폭력조직이 페낭을 장악한 사건의 잔재가 여전히 존재한다. 폭력조직이 근절되고 또한 법과 양심을 무시한 매춘, 성적 타락, 마약 밀매 등의 범죄가 그 땅에서 그치도록



가지치기 : 최소화하기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의 삶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가지치기 작업의 시간과 양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가지가 건강하려면,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있어야 한다. 가지인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의 근원이며, 우리가 생존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참포도나무에 꼭 붙어있으면, 나무로부터 힘을 얻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영적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 또한 생긴다.

가지치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삶에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일들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 일은 대부분 부수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들이다. 참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

세 번째는 바로 열매맺는 것이다. 단순히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여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방향키를 내어드리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가 취할 태도는 가지치기 작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또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지치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라를 위한 기도: 페락(Perak) 주(州)를 위해

- 페락 주민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페락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중국인 마을은 134개에 달하는데 반해, 그리스도인은 정말 소수에 그친다. 모든 문화를 초월한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티벳 불교 사원이 팜분(Tambun)에 있다. 이 사원을 자주 찾는 이들이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도록.
- 루트(Lumut)에 위치한 해군기지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곳을 비취주시고 영해를 지키는 전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 : 성서이자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거나 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말씀(Word)’ 또는 ‘성경(Bible)’이란 전체 66권으로 구성된 성경(또는 그리스어 ‘비블리온’[βιβλίον])을 뜻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것은 ‘율법’이라는 단어에도 적용되는데, 율법을 모세가 썼는지 다른 예언자가 썼는지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사실상 모든 가르침, 명령, 교훈, 규정, 약속, 경고, 심판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시대에서 ‘성경(Scripture)’이라는 말은 대부분 각각의 두루마리나 책에 쓰인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그 책들은 거룩하고, 권위 있으며, 거스를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으로 여겨졌다. 구약성경은 결국 메시야에 대해 증언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사도시대와 초기교회 때에도 이 여러 권의 성경들은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라고 했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오늘날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특별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받아들인다.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의 권위와 능력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몇 번이고 입증되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고별설교(요 15-17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연약함, 세상에서의 고난, 사탄의 공격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이를 통해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이 입증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당연한 듯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통치자들을 위해

-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국왕 양 디 빠르투안 아공(Yang Di-Pertuan Agong)과 각 주의 술탄(왕)과 배우자와 가정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에게 드러나도록.
- 그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 국민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이 언행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도록
-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자선활동 및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왕족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들의 노력이 증대되고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 : 자연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세 계화, 다문화, 다종교적인 현대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역사, 예술, 과학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손과 발자국’이 반영된 하나님의 자연계시이다. 자연계시는 성경처럼 분명한 특별계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낼 만한 외적 증거이며, 우리의 신앙고백을 확증해준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마 22:37, 막 12:30, 눅 10:27). 자연은 주님의 영광(시 8편, 9:1)을 선포하고, 찬양하며(시 89:5), 또 그분의 의(시 97:6)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주장과 논리, 비판에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진리는 결국, 세계와 인류를 자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 역사가 성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창조주께로 이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종교적, 인종적 극단주의자들처럼 지성주의나 편협한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된다. 또 세상적 신념과 가치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계시에 대해 그저 감사하는 것에 머무를 수는 없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하며,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 또한 주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에 대해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땅에 속한 것까지 지나치게 경건한 믿음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말씀을 나누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하도록 하자. **당신의 믿음에 대한 이해는 세상에서 능력을 드러낼 만큼 깊고 믿을 만한가?**

나라를 위한 기도: 총리를 위해

- 총리가 큰 부담과 도전을 극복하여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 총리 주변에 지혜롭고 건진하며 경건한 조언을 해줄 사람들을 붙여 주시도록
- 총리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실재를 경험하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 : 말씀과 성령

우리는 때때로 말과 생각을 혼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교회 용어’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면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든가 ‘사람 안에 있는 빛’ 등과 같은 표현이 있다. 이는 사람의 직관이나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어떠한 예감이나 상상력을 뜻하는가?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면’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꿈과 환상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17세기 퀘이커 교도들은 ‘그리스도의 내면의 빛’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적 안내와 구원의 확신을 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주관적인’ 믿음에 극단적으로 의지하여 전통적 형태의 예배와 성례, 형식주의 등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개혁주의자들은 내면의 성령의 음성이나, 개인적 체험 등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성경과 성경적 교리의 권위에 대해 규칙적이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교했다.

성경은 종종 말씀을 성령과 연관 짓는다(엡 3:5, 히 4:12).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항상 함께 일하신다는 것은 분명하다. 누군가가 적절하게 묘사하기를, “우리가 말씀만 가지면 메마르게 되고 성령만 가지면 방만하게 된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모두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우리 자신을 구분 짓거나 구분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그만두라. 그 대신 항상 말씀과 성령의 연합 관계를 추구하라. 둘 중 더 뛰어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된 이분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삶과 사역 속에서 성경적 원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삶에서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나라를 위한 기도: 장관들을 위해

- 장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 나라의 재산을 신중하게 경영하고,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로운 경제정책을 펼치도록
- 나라의 연합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에 대항해 분명하고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인종과 종교의 소수자들의 근본적 권리를 약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입법행위가 폐지되도록
-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담대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시119:46)” 기회를 취하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 : 말씀과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주가 생겨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갔고 다시 주위 담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사 55:10-12), 그리스도의 나심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눅 1:37)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보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신 9:5).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므로 우리는 말씀을 설교하는 데에만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탄의 구속에서 자유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설교, 치유, 구제(축귀) 사역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때로는 의사, 교사, 재난 구호가가 되어 이 사역을 개인의 능력 면에서, 또 교회차원에서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배경과 교단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중보와 영적전쟁에서 더 온전히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한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잃어버린 자’에게와 더 나아가 ‘(정치적)정사와 (영적)권세’잡은 자들에게까지도 말씀의 능력은 전달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능력 있고 어떤 강력한 무기나 도구처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분열과 파괴를 부를 수 있다(사탄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해 말씀을 왜곡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능력이 있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연방정부를 위해

- 연방정부가 이 나라 행정의 중심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 연방정부가 연방 내 각 주(州)로 재정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분배하도록
- 연방정부가 적절한 개발 프로젝트를 각 주(州)를 대상으로 집행하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 :

복음으로서의 말씀(1)

- 내용과 메시지

복음은 단지 말씀의 일부가 아닌, 그 본질이자 핵심이다. ‘복음(gospel)’이라는 용어는 고대 영어 ‘godspel’에서 왔다. 이는 ‘하나님의 이야기(godstory)’ 또는 ‘좋은 소식(good tidings)’라는 의미로, 신약의 그리스어 ‘유앙겔리온(evangelion[εὐαγγέλιον])’을 다시 번역한 것이다.

복음은 사명에 기초한다. 즉,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 받았다.

그렇지만 ‘복음주의자’인 우리도 지나치게 문자적 해석에만 치우쳐 선교 사명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잃어버린 이들을 구속하기 위한 아버지의 열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며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심판을 제외하고 구원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말씀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과 은혜, 자비를 선포하지만,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 받았고, 다시 태어났으며,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영광의 옷을 입었고, 죄 사함을 얻었고, 새롭게 되어 결국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의롭다하심을 입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복음의 충만한 복 안에서 확신 가운데 안식을 누리자(롬 15:29).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이들에게 주어진 새 삶과 큰 복으로 인해 기뻐하는가? 혹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위해

- 모든 주지사들이 자신이 속한 주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 공의와 진실함, 능력과 정의 등이 주정부, 지방정부, 특별지방정부를 지지하는 기둥이 되도록
- 선출된 주(州)의원들이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 : 복음으로서의 말씀(2) - 선교와 전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준비시키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좋은 소식으로 열방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다. 교회의 일차적인 부르심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마 28:18, 막 16:15, 눅 24:46, 요 20:21, 행 1:8). 초대 교회 시대에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구원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100년 안에 복음이 로마제국을 넘어서까지 전해졌다는 증거도 남아있다. 300년 후에는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제국 전체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10세기 즈음에 진보하던 복음은 점차 쇠퇴를 보였고 유럽세계는 바야흐로 중세시대로 접어들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대신에 종교와 정치적 권력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회복을 거치며 교육과 사회 및 의료복지를 통해 두드러진 선교활동을 벌였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교회가 지상명령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셔서 회복으로 이끄실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쇠퇴가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개신교의 부흥으로 이어진 것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진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영적 열매를 맺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가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거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과정이 때때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환난과 시련을 견디는 중에도, 고통스런 가지치기의 과정 중에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선교와 전도의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 국회의원을 위해

- 여야의 선출된 의원들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유권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 5년마다 있는 총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 더 많은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불의한 관행들과 원칙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 :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 시편 119편

경이로운 시편 119편의 고전적인 강해로 한주간의 묵상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거룩한 반복

말씀은 어떤 중심 주제에 대해 신중하고 의도적인 반복을 한다.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구원과 성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율법과 규례 등에 대한 것들이다. 각각의 반복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온전한 안내자라는 진리로 우리를 이끈다

2)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과 직접 관계 맺고 함께하신다.

이는 본문의 첫 번째 절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호와’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지 않으신다. 인격적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3) 하나님의 말씀은 참 기쁨을 가져다 준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을 복 주기 원하시고, 자녀들이 진실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하지만 말씀이 없이는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없다. 소위 착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기쁨을 가진 자의 복을 누릴 수 없다. 시편 119편의 시작인 1~8절은 히브리 문자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알레프(α Aleph)라 한다. 이는 서두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얻는 기쁨과 거룩함은 나란히 함께 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시편 119편을 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나라를 위한 기도: 연방직할구 -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라부안(Labuan),
뿌트라자야(Putrajaya)를 위해

-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위 관직의 인사를 주관하셔서 의로운 자들이 법정의 자리에 앉아 이 나라가 복을 받도록
- 하나님께서 연방직할구의 사회와 문화 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교회가 사회 깊숙이 영향을 끼치도록
- 이 땅을 향한 구속의 은혜가 드러나고, 연방직할구가 말레이시아의 모든 종족에게 복을 가져다 주도록



거함에서 오는 능력 : 독생자 그리스도의 전적인 신뢰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 주제는 ‘기독론의 기초’ 등에서 종종 다루어지는데, 사람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신비를 풀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둘러싼 수많은 질문 중 하나는 ‘만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면, 왜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굳이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한가?’이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시기 전, 태초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요 1:18).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역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아버지와 분리 되었지만, 독립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고 아버지께 거하는 편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를 여쭙아 했다. 이러한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영적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요 5:19).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주님이 명하신 모든 사역의 영역에서 주께 거하여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아버지께 의지하기 위해 친밀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사바(Sabah)주를 위해

- 사바인 성도들에게 연합의 영이 부어지고, 그들이 복음의 시급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사바 출신의 청년들 중 미래의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토착 교회가 주장하는 교회의 권리 또한 말레이시아의 성숙과 함께 가야함을 이해하도록
-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국경지역의 보안과 보호를 위해 - 경찰, 민병대(RELA), 군인 등으로 구성된 국경 순찰 요원(BPA)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 정부가 불법 밀입국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정책을 강구하도록
- 시골지역에 기본적 시설(도로, 전기, 물 등)이 적절히 구축, 정비되도록



거함에서 오는 능력 : 당신은 깨어있습니까?

마태복음 26:41,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의 신음하는 기도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그는 울부짖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의 땀과 피가 구슬처럼 땅에 떨어졌다. 고통 속에 계실때, 천사들은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신 고난의 잔을 옮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위대한 슬픔을 감당하시도록 왔을 뿐이었다.

낮 동안 몹시 지친 그의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 잠들어 버렸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도록 흔들여 깨우는 장면이 세 번이나 등장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순간에 성전의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 왔고 그들은 예수를 끌고 갔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다.

몇 시간 후에, 제자들 중 한 사람은 그를 부인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살이라는 죄를 범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들의 주인과 같은 종말을 맞을까 두려워하며 숨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었다. 기도하는 자만이 유혹의 순간에 맞서 저항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를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군 천사가 있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기도로 씨름했기 때문에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릴 수 있었다. **당신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가운데 분별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교육부를 위해

- 교육부에 지혜, 상담, 지식 그리고 이해의 영이 부어지도록
교육부 장관, 정책 입안자, 교육과정 집필자, (시, 주, 연방정부의) 교육국, 학교장, 선생님들, 선생님을 교육시키는 이들, 상담자들, 규율 위원회, 학교 위원회 그리고 온라인 교육 사업을 위해
- 교육부가 목적을 가지고 경건한 가치와 건강하고 생산적인 젊은 세대를 육성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 및 태도를 구축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 교육부가 국내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더 많은 기금과 자원을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도록



거함에서 오는 능력 : 숨겨진 시작; 작은 시작들

사도행전 13:22,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청년시기,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윗은 훗날 그의 형제들보다 두 세자 정도 작았다. 양치는 소년으로서(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는데), 베들레헬 뒷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팔매질하는 기술을 연마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형제들은 군대에 들어가거나 아버지를 위해 보다 ‘눈에 띄는’ 일을 함으로써 남자답게 자라는데 실제적으로 좋은 기회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의 방향은 중심에서 벗어난 길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 양치는 소년이 온 나라를 이끌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표식은 어디에도 없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데, 이는 내면을 훈련하는 일을 간과하는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나날들 동안, 다윗은 예배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의 마음을 사랑 안에서 강해지도록 훈련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강건한 체격이나 똑똑한 머리 때문이 아니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전하게 단련된 그의 내면 때문이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 있는 잠재된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 유치원을 위해

- 유치원의 실무자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안전, 복지, 균형 잡힌 성장에 집중하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교육부가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운영상의 필요들을 조정하고 규제하는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독교단체들이 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 부모들이 아이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주시하며 과도한 교육의 욕구를 넘어서도록. 학습의 어려움과 장애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도가 이루어 지도록. 어린 아이들이 신뢰가운데 자라나고 재밌고 안전한 환경에서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도록
- 기독교 유치원이 아이들의 삶에 강력한 영적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실재를 가르치기 위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거함에서 오는 능력 : 용사

여호수아 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구약의 위대한 용사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에서 여러 족속과 전투를 해야하는 시기에 여호수아는 리더로 세워졌다. 우리는 때때로 여호수아를 두려움을 모르는 리더로 생각하는데, 이는 전투에 임하는 그의 모습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 더 깊이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과 위협에 씨름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

여호수아가 위의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는 그가 처음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신명기 31:6-8절에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에서 여호와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미 용감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자신의 과업을 완료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힘의 근원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을 망설이게 만드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나라를 위한 기도: 종교부를 위해

- 연방헌법에서 기술되어 있는 종교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 종교적 편견에 대항하여 발언하는 리더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도록
- 기독교의 종교적 권리와 자유에 관한 제한이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뿐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눌수 있도록 기도하자.
 - 1)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 2)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에서 선포하신 대로, 종교적 박해, 차별과 강력한 도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도록



거함에서 오는 능력 : 음식과 잔치

마태복음 11: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오대 황무지에서 온 이 광야의 남자, 요한은 누구인가? 낙타털 옷을 입은 이 거친 남자를 보려 온 군졸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이다. 그는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던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 중 한 명은 아니었지만, 그가 말하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찢어 회개로 이끌었다. 그는 그 자신을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여겼다. 그 소리는 왕궁의 상류층이 아닌 외롭고 황량한 사막 가운데에서 들려왔다. 그곳에서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즐거워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다.

마태복음에는 세례요한의 결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담대하게 헤롯왕과 그의 아내의 죄에 대해 고발했고, 이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요한이 그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영생에 대한 실재가 그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으로 부터 동떨어진 광야의 삶을 통해 받은 것이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강한 확신을 얻기 위해 그는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는 단지 영생이 주는 기쁨 안에 머무르면서, 세상에서의 그의 권리와 즐거움을 내려놓았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경제

- 정부 및 정치계의 부패를 양산하는 비도덕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하나님께서 근절을 위해
- 소비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비인격적이고 탐욕적인 생활방식으로 이끄는 온라인 중심의 급변하는 문화에 하나님께서 개입해주시도록
- 교회가 세속적인 영적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굳건히 서있도록. 이를 위해, 자기만족을 극복하는 영적인 개혁과 기독교인들이 왕의 왕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듯 그들의 직장 and 사업의 윤리적인 면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거함에서 오는 능력 : 유산

시편 2장 7-8절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은 위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선교적 소명을 품은 이들에게는 함성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다. 이 구절에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이 말씀이 예수, 다윗의 자손이자 메시아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셨다. “구하라.. 이방나라를 네 유업으로.”

오직 아들과 딸만이 유산을 받지만, 하인과 병사들은 임금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또한 우리에게 속한 것임을 알기에(눅 15:31)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특권이 된다.

이것을 알기에, 나는 더 이상 기도할 때 무엇을 보상을 받기를 구하지 않는다.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그의 유산을 나눠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며, 예수님 옆에서 중보하고 헌신한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온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께 열방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재정부를 위해

- 납세자들의 성실한 자세에 악영향을 주고 국가 자금을 고갈시키는 개인 혹은 정당 안팎의 부도덕한 계약(그리고 불법의 영)을 하나님이 근절해주시도록. 횡령 및 남용, 부패를 근절하는 건전한 금융 정책을 위해
- 국가 재정위기로 인해 미래 세대들에게 빚을 떠안기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 나라가 같은 덫에 빠지지 않도록
- 국가 전체의 발전과 개발을 위한 지출 및 투자활동에 신중을 기하도록



거함에서 오는 능력 : 성령의 권능 위임

사도행전 1:4-5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업은 십자가 위에서 완수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로마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이 물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그는 대답을 통해 세가지를 강조했다.

1. 그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2.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한 너희로 인해 확장될 것이다
3. 이는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는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을 때에 적막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을 상상해 본다. 제자들은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들 위로 임할 때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 일이 있는 후 예루살렘에 부흥이 임했고, 이전에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삼천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확신 아래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 사건은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침노의 전조에 불과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정복해야 할 아주 많은 땅이 남아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권능을 주시는 성령에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대학교를 위해

- 교수, 강사들이 차별 없이 인종과 신앙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지혜를 갖도록.
-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이 공평하고, 도덕적이며, 교육자로의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도록
- 신입생들이 변화와 적응, 외로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는 정신력을 갖도록
- 학문적 탁월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는 이중의 목표처럼, 기독교인들이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기독교인 학생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부정적인 포레 집단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안에 머물기 : 십자가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의 죽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했고, 이로 인해 죄인으로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고 순고한 사랑의 모습이다. 그 사랑을 얹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모든 반항과 이기심, 고집, 저항은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놓을수록 이 위대한 사랑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간다.

이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으며 이 은혜의 방식을 떠나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구원의 결과이지만, 구원을 위한 수단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엡2:8-10)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가 주는 경이로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학교를 위해

-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마음을 품고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헌신하도록
- 학교 내 기독교 모임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도록
- 시골지역에 더 많은 중등학교들이 세워져서, 모든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안에 머물기 : 순종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신실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오늘 우리는 위의 말씀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한 다른 방법, 즉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배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 반면에, 불순종은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만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실재와 깊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경험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 깊이 자라간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는 그의 사랑이 그의 몸된 교회를 정의하는 특징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 조호(Johor) 주(州)를 위해

- 조호 지역을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개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생활수준 향상을 이끄는 조호 개발(Iskandar Johor)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자. 국가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협하는 탐욕과 부패를 대항하도록
- 지역 운영 방식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조호의 술탄(왕)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가 청렴을 지키고, 사람들의 안목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하도록
- 싱가포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총리와 주 정부가 지역 개발을 보완하는 선한 정책을 고안하고 집행하도록

맺으며

외부 집필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참 포도나무에 거하라 필립 고 목사(Rev Dr Phillip Koh)
- 가지 로비 시무니 목사(Pr Robbie Simunyi)
- 열매 이 예우 멩 목사(Pr Lee Yew Meng)
- 가지치기 림 예우 추엔 목사(Rev Dr Lim Yeu Chuen)
- 우리안에 거하시는 말씀 로 순 초이 목사(Rev Loh Soon Choy)
- 거함에서 오는 능력 케로린 보인 사모(Ms Carolyn Boin)
- 사랑안에 머물기 찬 아 키 박사(Dr Chan Ah Kee)





NCCF MALAYSIA

편집 및 발행

말레이시아 복음주의협의회

32, Jalan SS2/103, Petaling Jaya

47300,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Tel:03-77278227 Fax:03-77291139

Email:prayer@necf.org.my

www.necf.org.my